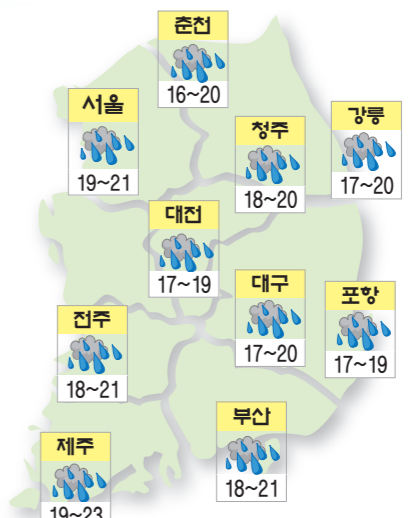




오색연등 아래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19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무각사를 찾은 불자들이 오색연등 아래에서 합장을 하고 있다. 오색 연등은 부처님의 탄생을 기리고 지비와 지혜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정성 이 담긴 연등은 크기와 상관없이 간절한 마음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뜻이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출몰	05:25	달몰	08:20
해질	19:33	달질	23:35



광주	19~23
목포	19~23
여수	18~21
순천	18~23
구례	18~24
광주	18~22
신도	18~21
흑산도	17~21
진남	18~23
진도	19~22

목포	미물(구)	04:49 / 16:42
	샘물(제)	09:54 / 21:52
여수	미물(구)	11:24 / --:--
	샘물(제)	05:25 / 17:28

오월단체 “5·18, 두 번 죽이는 일...사과 거부”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후폭풍

신세계 김수완 총괄부사장 광주 찾았지만 면담 불발 “꼬리자르기 해명...진상 공개·책임 있는 조치 먼저”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온라인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신세계그룹 측은 광주를 찾아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5·18 단체들은 “5·18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면담 자체를 거부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5·18민주유공자유족회·5·18민주유공자공모자회 등 5·18기념재단은 19일 “신세계그룹 측은 사과 방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스타벅스 측은 전날 밤 재단 측에 사과 의사를 전달했고, 이날 오전 광주에서 면담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단체들은 행사 시작 약 20분 전 최종적으로 거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찬 5·18부상자회 부회장은 “단순 김수나 짧은 직원의 착오로 남길 문제가 아니다”며 “5·18 당일 ‘탱크데이’라는 표

현과 특정 문구 사용은 시민들에게 계엄군의 폭력을 떠올리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 이익을 위해 오월 영령을 모욕하는 것은 5·18을 다시 짓밟는 행위”라며 “대국민 사과와 정확한 경위 설명, 책임 있는 조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정유진 회장의 행보 등을 볼 때 노이즈 마케팅이나 정치적 의도가 심된다”며 “향후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재대 5·18기념재단 사무처장도 “형식적인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수완 신세계그룹 총괄부사장은

광주 5·18기념문화센터를 찾았다가 면담이 무산되자 현장에서 고개를 숙였다. 김 부사장은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5·18 영령과 유가족, 광주시민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정유진 회장도 대국민 사과를 했고 그룹 차원에서도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이벤트는 계열사가 단독으로 진행한 온라인 프로모션으로 날짜가 우연히 겹친 것”이라며 “텀블러의 공식 명칭이 ‘탱크 텀블러’였고 노이즈 마케팅이나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프로모션 기획과 접수 과정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관련 경위를

정확히 파악한 뒤 다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스타벅스 머그잔을 망치로 깨부수는 영상이나 이를 휴지통에 버리는 등 불매운동을 인종하는 사진이 잇따라 게시되며 파장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편 전남 광주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SNS를 통해 “희생자들과 시민들의 피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이벤트”라며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비인간적 행태에 대해 도덕적·행정적·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전남대총동창회, 70주년 기념 ‘기억의 정원’ 조성

5·18 항쟁 학생 모습 동판으로 재현...“민주정신 계승”

전남대학교 총동창회가 개교 74주년과 총동창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민주주의 정신과 대학의 역사를 기리는 ‘기억의 정원’을 조성했다. 총동창회는 지난 18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 정문 앞에서 ‘기억의 정원’ 개원식을 열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동문과 학생들의 뜻을 기렸다. 기억의 정원에는 1980년 5월 18일 오전 전남대를 점령한 계엄군에 맞서 저항하던 학생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동판 작품이 설치됐다. 작품은 오월 항쟁의 현장을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후대에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개원식에는 최근 전남대에서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우원익 국회의장도 참석했다. 우 의원은 12·3 비상계엄 해제와 국회 정상화 과정의 의미를 언급하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을 강조했다. 총동창회는 이와 함께 300호 대형 작품 1점과 100호 규모 작품 3점을 학교에 기증했다. 기증 작품들은 현재 구 대학 본관에 전시돼 구성원과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앞서 총동창회는 지난 16일 교내에서 창립 70주년 기념행사도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민주길 걷기와 주먹밥 나눔 행사, 이을식 전 전남도지사 흉상 제막식 등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대학의 역사와 5·18 민주정신의 의미를 함께 되새겼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흥기 피습 경험 경찰관 현장 트라우마 ‘경고음’

진압중 중상 입은 경감 사망...PTSD·우울증 시달려 정신건강 관리 한계...“출동 지령에 몸 굽는다” 호소

112 신고 현장에서 흥기 난동범을 제압하다 중상을 입었던 50대 경찰관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끝내 숨지면서 현장 경찰관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한 지구대 소속 A경감이 전남 병원 치료 도중 숨졌다. A경감은 지난 2024년 4월 광주 남구 송하동에서 발생한 ‘경찰관 3명 피습 사건’ 당시 현장에서 출동했던 경찰관 중 한 명이다. 당시 A경감은 용의자가 휘두르는 흥기에 이마와 왼쪽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다량

출혈을 입었다. 이후 전남대학교병원에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신체적 부상은 회복됐지만, 이후 극심한 우울감과 PTSD 증세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매월동의 장례식장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넘어 현장 대응 경찰관들에게 장기적 정신적 상처를 남긴 사례라고 보고 있다. 흥기 난동이나 강력 사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사

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동료의 피를 흘리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경험한 경찰관들 가운데는 “출동 지령 소리만 들어도 몸이 굽는다”, “현장 복귀가 두렵다”는 반응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 2월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흥기 난동범에게 중상을 입고 실탄 사격 끝에 범인을 제압한 다른 경찰관 역시 현재 병가와 휴직을 반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현재 심리 상담과 치료 지원을 위한 ‘마음동행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상담 기록에 대한 조직 내부 시선과 인력 공백 부담 등으로 치료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영진 기자 looks@

5·18재단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5·18기념재단 홈페이지가 악성코드 공격을 받으면서, 일부 IP에 대한 차단 조치가 진행 중. 19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출처 불명의 IP 주소가 재단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디도스(DDoS) 공격을 벌여, 여러 IP가 반복적으로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시도했고, 한때 서버가 마비. 재단은 해당 IP 주소들이 전남 발표된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에 대한 비판 보도자료가 게시된 웹페이지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재단은 현재 반복 접속이 확인되는 IP 주소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재단 홈페이지는 지난해 전투환이 일으킨 12.12 군사반란과 관련한 비판 보도자료를 냈을 때도 같은 공격을 받았다. 재단 관계자는 “5·18과 관련한 특정한 날이나 이슈가 있을 때면 이 같은 공격이 종종 발생한다”며 “현재 접속 기록과 트래픽 이상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끝나지 않은 5·18’, 광주 오월 행사 계속된다

민주기사의 날 기념식·레드페스타·새벽광장 등 학술세미나·전시까지...“기억하는 방식도 진화”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끝났지만 광주 오월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주의와 공동체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추모·문화·학술 행사가 이달 말까지 광주 곳곳에서 이어지며, 세대를 넘어 오월 정신을 기억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도 계속되고 있다. 19일 5·18민주화운동기념행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20일 민주기사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23일 5·18청소년문화제 ‘레드페스타’, 26~27일 승리의 날 새벽광장, 29일 ‘5·18 국가폭력 보고서’ 발간 학술세미나 등이 잇따라 열린다. 20일에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수송과 차량 시위에 나섰던 운수 노동자들의 정신을 기리는 ‘민주기사의 날’ 행사가 광주 옛 무등경기장과 금남로 일대에서 개최된다.

‘민주기사의 날’은 1980년 5월 버스와 택시를 이끌고 전남도청까지 행진하며 계엄군에 맞섰던 광주 운수 노동자들의 항쟁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행사는 국민의례와 기념사, 민주기사를 수여,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이어 차량 행진 순으로 진행된다. 택시 등 차량 40여 대는 태극기와 깃발을 달고 무등경기장을 출발해 광주역과 유동사거리, 금남공원을 거쳐 옛 전남도청 앞 금남로까지 약 4km 구간을 행진할 예정이다.

21일에는 전남대학교 용봉홀에서 5·18보훈공정회가 열린다. 전남대 5·18연구소가 주관하고 5·18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모자회)와 5·18기념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5·18 헌법정신과 민주유공자 보훈금여금 등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23일 오후 1시30분 금남로에서는 5·18청소년문화제 ‘레드페스타’가 펼쳐진다. 청소년들은 공연과 체험, 발원, 부스 프로그램 등을 통해 민주·인권·평화·나

눔·공동체 정신을 자신들만의 문화 콘텐츠로 재해석할 예정이다. 당시 광주시민이 참여했던 민주화대성회와 민주수호 범시민결기대회를 재연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청소년 세대의 목소리와 고민도 함께 담아낼 계획이다. ‘승리의 날 새벽광장’ 행사는 26일 오후 5시18분부터 27일 오전 5시27분까지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진행된다. 1980년 5월27일 새벽 마지막까지 광장을 지켰던 시민들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주먹밥 나눔과 전시, 문화예술프로그램 등이 이어진다. 5·18기념재단은 29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다목적실에서 ‘5·18 국가폭력 보고서’ 발간 중간점검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

명조사위원회의 정부 공식 보고서 한계를 보완하고 국가폭력의 주요 쟁점을 재정립하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청년 PM(Project Manager) 사업의 일환으로 상설 전시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가 오는 25일까지 옛 전남도청 앞 회화나무술 일대에서 진행된다. 또 1980년 당시 시민들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 호위를 붙이고 배포했던 행동을 재해석한 ‘호위와 방 불이기의 실천’ 프로그램도 25일 오후 1시부터 열린다. 5·18민주항쟁기념행사위원회 관계자는 “민주주의는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집하며 실행하는 경험이 반복될 때 완성된다”며 “새로운 세대가 오월을 기억하는 방식 또한 계속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